

‘강동희 분량’ 통편집 조치에도 시청자들 싸늘

농구대잔치 기아차 레전드로 소환 예고에 강동희 나오자 시청자 항의 논란 커지자 제작진 촬영 전부 편집 일각선 섭외 제한한 허제까지 비난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프로농구에서 제명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현 원주 DB) 감독이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쏜다’에 출연하면서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논란은 27일 ‘뭉쳐야 쏜다’ 본 방송 이후 전파를 탄 예고편에 강 전 감독이 등장하면서 시작했다. 해당 예고 영상에는 7월4일 방영될 ‘농구대잔치’ 특집의 일부 장면이 담겼다. 축구 안정환과 이동국, 테니스 이형택 등 각 분야 스포츠스타들이 팀을 이룬 ‘상암불낙스’가 연세대·고려대·기아자동차 등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뜨거운 열기를 지핀 ‘농구대잔치’ 출신 스타들과 승부를 겨루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강동희 전 감독이 기아자동차 ‘레전드’로 출연할 예정이었다.



승부조작 혐의로 프로농구에서 제명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이 7월4일 방송하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쏜다’에 출연한 모습. 27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 등장했다.

사진출처 | JTBC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과 유튜브 예고 영상 댓글창 등에는 강 전 감독을 섭외한 제작진을 향한 비판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강 전 감독이 2013년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력을 문제 삼았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시절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

을 받고 네 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서도 제명됐다. KBL은 15일 강 감독에 대한 제명 징계 해제 재심의도 각각 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제작

진은 “과거 농구대잔치 분위기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섭외로 걱정을 끼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보기 불편한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강 전 감독의 촬영 분량을 전부 편집할 방침이다. 예고 영상과 시청자 게시판 등도 비공개 처리했다.

제작진의 ‘통편집’ 조치에도 시청자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정신을 전하는 것이 스포츠예능프로그램의 목표 아니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상암불낙스’의 감독으로 활약 중인 허제 전 농구 국가대표 감독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 전 감독이 승부조작 파문 이후 처음 얼굴을 내민 SBS 예능프로그램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의 출연이 허 전 감독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뭉쳐야 쏜다’에 강 전 감독이 출연할 수 있었던 데에도 허 전 감독이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내놓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여름 흥행맨’ 황정민 뜬다 영화 ‘인질’ 8월 개봉 확정



영화 ‘인질’

배우 황정민이 ‘여름 흥행맨’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할 기세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시즌 극장가 관객몰이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8월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다.

황정민은 8월 개봉을 확정된 영화 ‘인질’(감독 필감성·제작 외유 내강)로 여름 극장가를 겨냥한다.

극중 배우 황정민이 어느 날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당한 뒤 목숨을 내걸고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는 액션 스릴러 영화를 무대 삼는다. 자신의 실제 이름을 캐릭터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인질’ 제작진은 최근 고군분투하는 분위기가 물씬한 그의 모습을 내세워 메인 포스터를 구성, 공개했다. 1차 예고편도 선보이면서 관객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정민은 앞서 2017년 ‘군함도’를 시작으로 2018년 ‘공작’, 2020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여름시즌 개봉한 영화로 잇따라 흥행 성과를 일궈왔다. 2015년 ‘베테랑’의 1000만 관객 동원까지 포함해 여름 극장가에서 특히 눈에 띄게 활약했음을 보여준다.

황정민의 이 같은 행보는 극장가의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시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물린 이 시기에 투자배급사들은 각기 최고 기대작을 선보이며 흥행을 노려왔다.

이는 황정민이 대규모 관객몰이가 가능한 또 한 명의 배우임을 방증한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관객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 8월에도 이정재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435만 여명을 불러들였다. 새로운 주연작 ‘인질’이 그 바통을 이을지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SM엔터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공식화

그룹 H.O.T를 비롯해 S.E.S,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동안 발표해온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새롭게 리마스터링해 선보인다. SM은 29일 자사의 비전과 향후 전략을 발표한 ‘SM 콘그레스 2021’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소개에 나선 강타는 “리마스터링 프로젝트로 지금 보고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유튜브와 손잡고 300여편의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공개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콘텐츠도 내놓는다. 또 오리지널 채널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채널A ‘강철부대’, 3회 분량 스페셜편 편성



채널A ‘강철부대’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모두 3회에 걸쳐 스페셜편을 추가 방송한다. ‘강철부대’ 제작진은 29일 “본편 14회, 전우회 외전 2회에 이어 7월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스페셜편 외전으로 3회를 더 선보인다”고 밝혔다. ‘강철부대’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전사, 해병대수색대, 707(제707특수임무단), UDT(해군특수전전단), SDT(군사경찰특임대), SSU(해난구조전대) 등 각 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미션 경쟁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한편 29일과 7월6일에는 ‘강철부대’ 출연자 24인의 이야기를 담은 ‘강철 전우회’가 방송된다.

자가격리 해제 세븐틴 ‘유어 초이스’ 활동 시작



세븐틴

감염병 사태에 가로막혔던 그룹 세븐틴이 29일부터 미니앨범 ‘유어 초이스’(Your Choice) 활동에 나섰다. 세븐틴 멤버들은 이날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19일부터 자가격리됐다. 29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 멤버 전원이 29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8일 ‘유어 초이스’를 내놓은 세븐틴은 빌보드 메인 앨범 최신(7월3일자) 차트인 ‘빌보드 200’에 15위로 진입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다시 ‘오디션’ 붐…참가자 매력에 달렸다

‘라우드’ ‘슈퍼밴드2’ 등 올해만 6편 아이돌 소재 ‘포맷의 한계’는 여전 ‘새가수’ ‘걸스플래닛’ 참가자에 기대



슈퍼 밴드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이 다시 ‘붐’이다. 최근 방영 중인 SBS ‘라우드’와 JTBC ‘슈퍼밴드2’를 포함해 올해에만 6편 가까이 제작됐거나 제작·방송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트로트 장르로 불붙은 오디션 포맷이 다시 아이돌 소재로 회귀하는 분위기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7월15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새가수), 8월 방영을 앞둔 엠넷 ‘걸스플래닛 999:소녀대전’(걸스플래닛), 9월과 11월 각각 방송하는 MBC ‘극한데뷔 야생돌’과 ‘방과후설렘’ 등이다. 각기 다른 핵심 콘셉트를 내세우고 있다.

‘새가수’는 레트로(복고)를 주요 소재 삼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유행한 히트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경연을 펼친다. 이를 통해 작·편곡과 가창에 능통한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할 계획이다. ‘걸스플래닛’은 99명의 한·중·일 걸그룹 후보들을 모았고, 최근 45명의 최종 참가자를 확정한 ‘야생돌’은 댄스·노래 뿐 아니라 끼와 예능 감각까지 두루 살펴보기로 했다. ‘방과후설렘’은 웹툰 ‘프로듀스101’ ‘언프리티 랩스타’ 시리즈 등 음악 경연프로그램을 연출해온 한동철 PD가 나서기로 해 화제가 됐다.

유지혜 기자

각 제작진은 방영 이전부터 참가자 모집 및 사전투표 영상 등 관련 홍보를 이어가면서 프로그램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청자에게 이미 익숙해진 오디션 포맷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작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오디션 포맷이 더 이상 신선한 매력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수 박진영과 사이의 첫 합작으로 기대감을 모은 ‘라우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라우드’는 첫 방송인 5일 9%(닐슨코리아)에서 26일 5.5%까지 시청률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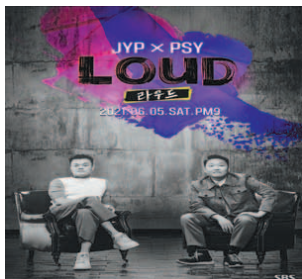
29일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슈퍼스타K’ ‘K팝스타’ 등 이미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역사가 길어 포맷 자체만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달아 비슷한 소재로 시청자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프로그램 참가자의 매력에 시청률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영 x 사이 ‘라우드’, 일본 dTV와 독점 계약

내달 3일부터 유료 서비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사이가 진행하면서 심사위원으로 나선 SBS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가 일본에서 선보인다.

29일 산케이스포츠와 오리코뉴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지 최대 유료 주문형 VOD 서비스인 dTV가 7월3일부터 ‘라우드’를 독점 공개한다. 이에 따라 박진영



SBS ‘라우드’

에 알리는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과 사이는 ‘라우드’를 이끌며 내걸었던 ‘케이팝 글로벌 보이 그룹 발굴 및 양성’이라는 포부를 해외

‘라우드’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6명의 일본 출신 오디션 참가자도 내세워 현지 시청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이 한국의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 갯세븐, ITZY(있지) 등 케이팝 아이돌 그룹을 다수 배출한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커진다. 사이 역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 파네이션을 설립해 현아, 제시, 헤이즈 등을 통해 힘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박진영은 JYP엔터테인먼트 수장

으로 지난해 일본 소니뮤직과 손잡고 9인조 걸그룹 니쥬를 발굴, 육성한 주역이어서 현지 언론과 방송가의 시선을 모은다. 니쥬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해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으로 현지 여성 아티스트 역대 2위의 앨범 판매액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아왔다.

이 같은 배경과 일본 방송을 바탕으로 박진영과 사이는 ‘라우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새롭게 얻는 계기를 마련한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